



알버타저널 발행인 안길웅

발행인의 데스크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닌 노부부의 눈물

편집자주: 캘거리 단체 카톡방에도 그냥 읽고 흘려버리기에 너무나 가슴저미는 사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소위 픽션인지 논픽션인지를 구별해 보려고 하기 전에 너무나 가슴저린 글들이기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읽으면서 이 글을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 발행인 데스크에 소개합니다.

우리 부부는 조그마한 만두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손님 중에 어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셨는데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면 어김없이 우리 만두 가게에 나타나는 겁니다. 대개는 할아버지가 먼저 와서 기다리지만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날씨가 궂은 날이면 할머니가 먼저 와서 구석 자리에 앉아 출입문을 바라보며 초조하게 할아버지를 기다리곤 합니다.

두 노인은 별말없이 서로를 마주보다가 생각난 듯 상대방에게 황급히 만두를 권하다가 눈이 마주치면 슬픈 영화를 보고 있는 것처럼 눈물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체 저 두 분은 어떤 사이일까?

나는 만두를 빚고 있는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글쎄요, 부부 아닐까?” “부부가 뭐 때문에 번두리 만두 가게에서 몰래 만나?” “하긴 부부라면 저렇게 애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지는 않겠지. 부부 같지 않아요. 혹시 첫



사랑이 아닐까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열렬히 사랑했는데 주위의 반대에 부딪혀 본의 아니게 헤어졌다. 그런데 몇 십년만에 우연히 만났다. 서로에게 가는 마음이 옛날 그대로인데 서로 가정이 없으니 어찌겠는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회를 한단 말이지? 아주 소설을 써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아내의 상상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이 그대로 들어나는 따뜻한 눈빛이 두 노인이 아주 특별한 관계라는 걸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 할머니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예요? 안색이 지난 번 보다 아주 못 하신데요?” 아내 역시 두 노인에게 쏠리는 가슴이 어쩔 수 없는지 걱정스

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오늘 따라 할머니는 눈물을 자주 닦으며 어깨를 들먹이셨습니다. 두 노인은 만두를 그대로 놓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돈을 지불하고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고 나갔습니다.

나는 두 노인이 거리 모퉁이를 돌아 갈 때까지 시선을 땔 수가 없었습니다. 곧 쓰러질 듯 휘청거리며 걷는 할머니를 어미 닮아 병아리 감싸듯 감싸안고 가는 할아버지... 두 노인의 모습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대체 어떤 관계일까? 아내 말대로 첫 사랑일까? 사람은 늙어도 사랑은 늙지 않는 법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어머? 비가 오네. 여보, 빨리 솔뚜껑 닫아요.” 그러나 나는 솔뚜껑을 닫을 생각보다는 두 노인의 걱정이 앞섰습니다. 우산도 없을 텐데... 다음 주 수요일에 오면 내가 먼저 물어 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만두 가게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몹시 궁금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두 노인에 대한 생각이 묵은 사진첩에 낡은 사진처럼 빛바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람인가 봅니다. 자기와 관계없는 일은 금방 잊어버리게 마련인가 봅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난 어느 수요일 날 정확히 3시에 할아버지가 나타난 겁니다. 좀 마르고 초췌해 보였지만 영락없이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조금 웃어보였습니다. 할머니도 곧 오시겠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못 와. 하늘 나라에 갔어...” 하는 겁니다. 나와 아내는 들고 있던 만두 접시를 떨어뜨릴만큼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얘기를 듣고 우리 부부는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너무 안타까워서...

두 분은 부부인데 할아버지는 수원의 큰 아들 집에, 할머니는 목동의 작은 아들 집에 사셨다 합니다. “두 분이 싸우셨나요?”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며느리들끼리 싸웠답니다. 큰 며느리가 “다 같은 며느리인데 나만

부모를 모실 수가 없다.”고 강경하게 나오는 바람에 공평하게 양쪽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한 분씩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견우 직녀처럼 서로 만난거랍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답니다.

“이제 나만 죽으면 돼. 우리는 또 다시 천국에서 같이 살 수 있겠지... 할아버지는 중얼거리며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할아버지 뺨에는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있습니다.

“노년빈곤”이란 말이 있습니다. 노년의 빈곤은 노출을 불러 불행한 것이라는 것이죠. 부모는 자식이 내미는 그 손에 자신의 모든 것을 지어주면서 애벌레가 성충이 크도록 애정으로 돌봅니다. 그리고 곱질만 남은 곤충처럼 되어버립니다. 세월이 흘러 부모는 늙고 힘도 없고 이제 부모는 가진게 없습니다. 너무 늙어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몇 푼 용돈을 얻기 위해 자신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부모님이 내미는 손이 보기 싫은 것이지요. 그에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내미는 손에 부모는 섬으로 주었던만 자식은 부모에게 흡으로 주는 것마저 부당스럽게 느낍니다.

더 늦기 전에 부모님을 더욱 더 사랑해야하는 이유입니다.

캘거리 어린이 여름캠프 학부모 요청으로 다시 열려



2020년도 두번째 어린이 여름캠프가 부모들의 요청으로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다시 열렸다.

캘거리 여성회가 주최한 이번 2차 여름캠프는 한국의 전통과 맥을 잇는 캠프로 진

행되어다. 종이접기, 아트, 과학 캠프, 장고, 태권도, 사물놀이, 골프, 축구, 춤 바, K-pop dance 등 1차에 이어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사물놀이는 한빛사물놀이 팀이 직접 공연과 함께 전통적인 사물놀이를 알려주



면서 사물놀이 이해와 역사를 15세대들에게 우리 것에 대한 아름다움과 귀중함을 전했다. 한빛팀은 차세대 지도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줌으로써 어린이들에게 한국의 꿈을 심어 주기에 충분한 과정이었다. 장구는 서보숙선생 지도로 진행되었다.

차진영 사범의 지도로 진행된 태권도 프로그램과 김태완 프로골퍼도 인기를 끌었다.

김 아람 선생의 축구교실, 김승숙선생의 우리동요와 율동 지도, 신한나 미술, 표소정 종아접기, Kelly 유의 K-pop r 강좌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였다.

